

책이 있는 風景

이 승 우
〈교보문고기획실장〉



독서는 일종의 惡德이다. 이렇게 갈파한 사람은 아마 프랑스의 작가 발레리 라르보였던 것 같다. 독서는 이룰테면 다른 모든 악덕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습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라르보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람이 책을 읽는 것은 직업상의 필요에 쫓겨서이거나 아니면 일상의 업무나 고달픔으로부터 잠시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오직 독서의 즐거움 자체를 위해 책을 읽고,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열중하는 사람은 예외적인 존재라는 것이 라르보의 논지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독서는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의무지워진 것이어서는 안되며 자유로와야 한다는 일종의 아포리즘이다. 독서의 목적과 효용은 어디까지나 즐거움 그 자체여야 한다는 얘기다. 라르보가 말하는 이상적인 독서는, 그러므로 「즐거움을 주는 외에 현실생활에 아무런 소용도 닿지 않는」 문학작품을 탐독하는 일이다. 그는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 살롱의 풍경, 심지어는 여인의 의상(衣裳) 묘사까지를 즐긴다. 이렇듯 의자에 앉은 채로 시간과 공간속을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는 것이 독서의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반드시 문학작품이 아니더라도 책을 읽는다는 것은 분명히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은 수많은 책더미 속에 파묻혀 사는 일이다. 나는 직업상 하루에도 몇 차례씩 수십만권의 책의 숲속을 누비고 다닌다. 갖가지 책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눈여겨 살피노라면 어떤 교수가 새 연구저서를 냈고 어떤 작가가 새 작품을 써냈는지, 말하자면 학계의 연구동향이라든가 문단의 동정·경향 같은 것을 대충 짚어볼 수가 있다.

특히 흥미를 끄는 것은 저자의 서문이나 작가의 後記 혹은 발문(跋文)이다. 대개는 그 책을 펴내기까지의 동기와 과정을 설명하고 은사·동료교수나 원고를 다듬어준 제자 혹은 출판사 편집자에게 고마운 뜻을 적는 것이 상례이지만, 더러는 원고집필 도중에 병고(病苦)를 겪었다든가 慘慫을 당한 슬픔, 아내의 따듯한 內助의 공을 담담히 술회한 대목에 이르면 지은이의 인정의 機微가 눈에 잡히는 듯하여 가슴이 뭉클 해진다.

특히 가장 반가울때는 아는 이의 저서와 만났을 때이다. 그 저자가 오래 소식이 끊긴 친구이거나 지기(知己)라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친면은 없어도 평소에 익히 알고 존경하는 인사일 경우 예의상으로도 서문과 발행일자 정도는 읽어보게 마련이다.

책방 안을 돌아보느라 무언보다도 그 많은 책의 다양함에 감탄하지 않고는 못배기게 된다. 가벼운 문고본에서 두툼한 전문서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각고의 과정을 거쳐 이제 독자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발자크의 어떤 소설의 주인공이 몽마르뜨 언덕에 올라 파리 시가를 내려다보며 「내가 정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도시」라고 호언했듯이, 저 많은 책들은 지금 내게 정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藏書라는 생각에 가슴이 펴진다.

책방을 드나드는 독자들도 책의 가짓수만큼 다양하다. 가장 인기있는 코너는 역시 문학서적 코너. 여기엔 중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주로 청소년들이 몰려드는데, 대개 속독법을 익혔는지 선 채로 소설류 한두권씩은 독파하는 단골손님이 많다. 더러는 다리가 저리는지 맨바닥에 주저 앉아 몇시간을 버티기도 한다.

학술서적 쪽의 여대생들 가운데는 쪼그리고 앉아 책을 베끼는 모습이 흔히 눈에 띈다. 한번은 연필놀림이 매우 민첩하기에 넌지시 들여다보니 속기로 필사하고 있었다. 아마 학교에 제출할 리포트용이겠지. 또 한번은 곁의 남학생이 책을 펴 들고 중얼중얼 음독(音讀)을 하기에 살펴 보았더니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하는 중이었다. 그 기막힌 아이디어에 무릎을 칠 밖에.

이러나 저러나, 책의 풍요함 속에 살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은 참으로 혜택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독서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악덕」이 아니며, 오히려 마땅히 향유해야 할 「특권」이 아닌가.

젊은이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소리는 옛말이다. 그들이 얼마나 무섭게 책을 읽는가는 큰 책방에 와보면 안다. 창백한 우등생만이 책을 읽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좀 묵은 자료이긴 하지만, 10여년 전에 일본의 어느 신문사가 〈행동과 독서〉라는 주제를 내걸고 독서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얻어진 결론은, 행동영역이 넓고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일수록 적극적인 독서가이며, 읽는 책의 내용도 다양하다는 것이었다. 독서가라면 집안에 틀어박혀 책이나 탐독하는 내향적 성격의 이미지가 강했던 종래의 고정관념이 깨뜨려진 것이다.

그런 「행동영역이 넓은 독서가」가 주로 대기업이나 관공서의 간부, 사무, 기술계의 직업인, 그리고 자유업 종사자에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도 어떤 시사(示唆)하는 바가 있다. 이 가열한 경쟁사회에서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교훈이다.